

2019 서울시 추가채용 7급 한국사(B책형)

1. <보기>의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왜인들이 세견선이 줄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을묘왜변을 일으켰다.

(나)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의 대군을 보내 조선을 침략하였다.

- ① 정여립 모반사건이 일어나 많은 동인이 처형당했다.
- ② 4~5천 명의 왜인들이 삼포왜란을 일으켰다.
- ③ 도원수 강홍립이 거느리는 원군을 명에 파견하였다.
- ④ 최세진이 『훈몽자회』를 편찬하였다.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가)는 1555년의 을묘왜변, (나)는 1592년의 임진왜란 발발에 대한 내용이다.

- ① 1589년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우의정에 특배된 송강 정철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확대하여 동인을 사사하면서 동인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이후 건저 문제(세자 책봉 문제)로 선조의 미움을 받아 양사에 의해 탄핵될 때 정철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동인은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의 분파가 이루어졌다.
- ② 삼포왜란은 1510년 부산포, 제포, 염포 등 삼포에 거주하고 있던 왜인들이 대마도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난이다. ③ 광해군(1608~1623) 대의 사실이다. 후금의 급성장에 위기의식을 느낀 명나라는 후금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명나라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명나라를 지원하게 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명령하였다. ④ 『훈몽자회』(1527)는 ‘기역’, ‘니은’ 등 발음을 기록한 것으로 종종 때 최세진이 편찬하였다.

2. <보기>는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는 (A)를 주어 자손에게 상속하게 하였다. 하급 관료의 자제 중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B)를 주고, 직업 군인에게는 군역의 대가로 (C)를 지급하였다. 직역을 계승할 자손이 없으면 국가에서는 토지를 회수하고 대신 유가족의 생활을 보호 하기 위해 (㉠)을 지급하였다. 한편 왕실에는 왕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D)를 지급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는 (㉡)을 지급하였고, 사원에는 (E)를 지급하였다.

㉠

㉡

①

구분전

공해전

- | | | |
|---|-----|-----|
| ② | 민전 | 내장전 |
| ③ | 군인전 | 공해전 |
| ④ | 한인전 | 내장전 |

정답 : ①

㉠ 구분전은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이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토지이다. ㉡ 공해전은 중앙과 지방의 관청의 경비 조달을 위해 지급된 토지를 말한다.

※ 참고로 A는 공음전, B는 한인전, C는 군인전, D는 내장전, E는 사원전이다.

3. <보기>의 그림들의 제작시기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동궐도」	
ㄴ. 안견의 「몽유도원도」	
ㄷ. 장승업의 「삼인문년도」	
ㄹ. 정선의 「금강전도」	

① ㄱ-ㄴ-ㄷ-ㄹ

② ㄴ-ㄷ-ㄹ-ㄱ

③ ㄴ-ㄷ-ㄱ-ㄹ

④ ㄹ-ㄴ-ㄱ-ㄷ

3. 정답 : ③

ㄴ.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세종 때인 1447년(세종 29)에 그려진 작품이다. ㄹ. 정선(1676~1759)의 「금강전도」는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대표작이다. ㄱ. 「동궐도」는 조선 후기의 도화서 화원들이 동궐인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각 및 궁궐 전경을 조감도식으로 그린 그림으로, 순조 시절인 1826년에서 1830년 사이에 그려진 그림이다. ㄷ. 장승업(1843~1897)은 조선 말기의 화가로 「삼인문년도」는 『동파지림』에 나오는 고사(故事), 즉 세 명의 신선이 비현실적인 비유를 들어 나이 자랑을 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그린 그림이다.

4. 고려 말기의 왜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의 무장들이 명성과 세력을 얻었다.
- ② 이들의 상륙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에서 화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 ③ 연해지방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입하기도 하였다.
- ④ 막부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 한반도를 침입하였다.

4. 정답 : ④

④ 왜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당시 일본이 남북조의 혼란기였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곧 정권이 양분되어 중앙통치권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57년이란 긴 기간 동안 사회적 불안은 증대되었다. 이러한 사회정세 속에서 농지를 잃은 농민과 전쟁에 동원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부력해진 하급부사, 그리고 여기에 토지가 적었을 뿐 아니라 그것도 비옥하지 못해 기근을 면키 어려웠던 쓰시마, 잇끼 지역의 열악한 입지조건과 아울러 가마쿠라 막부 중기 이후 변경지방까지 침투해 왔던 상품 화폐경제의 압박 등의 여러 조건들이 일본의 서쪽 연안 일대의 중소영주층과 영세농어민을 자극하여 해적이 되게끔 하였고 바로 이들이 고려의 연안에 침입하였던 것이다.

① 고려 말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최무선 등의 신흥 무인세력이 성장하였다. ② 1377년 우왕 재위기에 최무선이 화약 제조를 위한 국가 기관인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화포는 1380년 진포 해전 때 사용되기도 하였다. ③ 왜구가 고려 시대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고종 때였고, 이후 충숙왕 때까지 10회 정도 침입하였다. 이때는 침략 대상도 남해안의 경상도 일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충정왕 이후 왜구의 침탈이 본격화되었고, 침략 대상도 경상도뿐 아니라 전라도·충청도를 비롯하여 경기도·황해도·강원도·평안도·함경도 등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왜구가 내륙 깊숙이 들어와 활동하는가 하면 개경 가까이의 승천부와 강화·교동·예성강까지 나타나 수도에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개경보다 더욱 내륙 지방인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천도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5.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심문자 : 작년(1894) 3월 고부 등지에서 무슨 사연으로 민중을 크게 모았는가?
 전봉준 : 그때 고부 군수(조병갑)의 수탈이 심하여 의거하였다.
 심문자 : 흩어져 돌아간 후에는 무슨 일로 ㉠군대를 봉기하였느냐?
 전봉준 : 고부 민란 조사 책임자 이용태가 내려와 의거 참가자 대다수가 일반 농민이었음에도 모두를 동학도로 통칭하고, 그 집을 불태우며 체포하고 살육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
 심문자 : ㉡전주 화약 이후 ㉢다시 군대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나?
 전봉준 : ㉣일본이 개화를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공격하고 임금을 놀라게 했으니,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워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다.

-「전봉준 공초」(발췌요약)-

<보기 2>

ㄱ. ㉠ :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접이 연합하여 봉기하였다.
 ㄴ. ㉡ : 정부와 정치를 개혁할 것을 협의하였다.
 ㄷ. ㉢ : 공주 우금치에서 우세한 화력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ㄹ. ㉣ :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 | | |
|-----------|--------------|
| ① ㄱ, ㄹ | ② ㄴ, ㄷ |
|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전봉준 공초」는 그의 사형 판결 선고서와 함께 동학 농민 운동의 배경,

전개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ㄴ. 전주 화약(1894. 5. 8)으로 동학 농민군과 정부는 전라도 지역의 개혁 사무를 관장할 자치 기구로 집강소를 설치하고,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 개혁안을 실시하는 대신에 동학 농민군의 해산에 합의했다. 전주 화약이 체결된 직후 동학 농민군은 전주성에서 철수하고 집강소를 설치해서 폐정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ㄷ. 전주 화약 체결 이후에 일본군이 무단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켰으며 갑오개혁을 강요하였다. 이 사실이 동학 농민군에게 알려지면서 동학 농민군이 2차 봉기를 하였으나 결국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함으로써 사실상 동학 농민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ㄱ. 1차 동학 농민 봉기 때 반봉건의 기치를 내세운 것은 맞으나, 이 시기는 전봉준이 지휘하는 남접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났다. 최시형 중심의 북접은 처음에 거사에 반대하고 순수한 종교 운동을 고수하였으나, 동학 중진들이 농민 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게 되자 통문을 발표하였다. 남접과 북접이 연합 부대를 형성한 것은 제2차 동학 농민 봉기 때이다. ㄹ. 명성황후 시해사건인 을미사변은 동학 농민 운동이 끝난 후인 1895년 8월의 사건이다.

6. <보기>의 사건 이후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일본은 인진회를 사주하여 「합방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10년 초 일본은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로부터 한국 병합에 대한 승인을 받아 국제적인 여건을 충족시킨 뒤 한국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1910. 8. 22.)

- ① 일본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여 한국에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 ②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새로운 영토의 일부로 병합하고, 국가명이 아닌 지역명 '조선'으로 호칭했다.
- ③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된 조선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한반도에 대한 입법·사법·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 ④ 헌병 경찰은 구류, 태형, 3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한국인의 범죄에 대해 법 절차나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정답 : ①

① 일제는 대한 제국을 병합하기 직전에 회의를 통해 '병합의 기본 방책'을 정하여 조선을 일본의 헌법이나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일왕의 대권에 의해 통치되는 법역외(法域外)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일왕의 통치 대권에 해당하는 긴급칙령인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조선 통치법의 대강을 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헌법에 해당하는 최상위 법은 일왕의 명령인 칙령으로 대체하고 총독에게 입법권을 위임하여 그 명령인 제령을 통하여 조선을 통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일본 법률을 조선에 적용할 때에도 이를 칙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② 일제는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면서 대한 제국의 영토를 일본의 지역으로 파악하며 '조선'이라고 개칭하였다. ③ 조선 총독은 일본 육·해군 대장 가운데서 선임되었고, 일왕에 직속되어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조선에 주둔한 일본 육·해군을 통솔하여 조선의 방위

를 맡았다. 또한, 모든 정부를 총괄하여 내각 총리대신을 경유해서 일왕에게 상수, 재가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특별한 위임에 따라 총독부령을 발하고, 여기에 벌칙을 첨가할 수 있었으며,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등 매우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④ 일제는 1912년 조신 태형령을 공포하였는데, 이 법은 조신인에게만 적용되었으며, 헌병과 경찰은 재판 없이도 즉결심판에 의하여 태형을 가할 수 있었다.

7. <보기>의 부정선거가 계기가 되어 촉발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민주당 후보인 조병옥이 선거 10일을 앞두고 급사하여 단일후보가 되었음에도 자유당의 충성파들은 약 40%의 사전투표를 하는 등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이에 부통령 이기붕의 표가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79%로 하향조정하기도 하였다.

- ① 야당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여 저항하였다.
- ② 경무대를 향해 돌진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총격을 가하였다.
- ③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항쟁으로 불리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 ④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학생시위가 벌어졌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1960년 3·15 부정 선거에 대한 내용이다.

② 1960년 4월 초 전국에서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여론이 일어나던 시기에 마산에서 최루탄을 눈에 맞은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 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하였고, 4월 19일 약 3만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하던 도중 수천 명이 경무대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데모대에 발포하기 시작하였고, 주요 도시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① 민주회복국민회의는 민청학련 사건 이후 반유신 운동을 결집하기 위해 1974년 이병린, 함석헌, 천관우, 김홍일, 강원룡, 이희승, 이태영의 7인 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야인사 71명이 참여 조직된 단체이다. 이들은 ‘민주회복국민선언’을 발표하여 “헌법 헌법은 최단시일 안에 합리적 절차를 거쳐 민주헌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며 “반정부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역·구속·연금 등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사들을 사면석방”할 것 등을 요구했다. ③ 1979년 8월 YH 무역 사건을 계기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이 사건은 부산 지역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지만, 시위는 순식간에 마산과 창원으로 번져나갔다(부·마 항쟁, 1979. 10). ④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0년 5월 17일 사이 벌어진 민주화 운동을 말하는 것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후 보안 사령관인 전두환을 중심으로 집권한 신군부 세력에 반발하였다.

8. 17세기 말 숙종 때 벌어진 정치 집권세력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제2차 예송논쟁으로 집권한 서인은 숙종 6년(1680) ‘경신환국’으로 남인에게 정권을 빼

앗기게 되었다.

② '경신환국'의 결과 서인은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분당되었다.

③ 숙종 15년(1689) 후궁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하였는데 이를 '갑술환국'이라 칭한다.

④ 숙종 20년(1694) 남인 집안 출신의 왕비 민씨가 폐비되면서 서인(노론과 소론)이 다시 집권하였다.

정답 : ②

② 서인은 숙종 대 경신환국(1680) 이후 남인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두고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과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나뉘어졌다.

① 현종 때 일어난 제2차 예송논쟁으로 집권한 세력은 남인이다. 남인은 숙종 때 일어난 경신환국(1680)을 계기로 실각하였다. ③ 1689년 희빈 장씨의 소생을 원자로 정호하는 문제를 계기로 일어난 기사환국으로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세력이 축출되고 남인이 재집권하였다. ④ 1694년 서인 집안 출신인 왕비 민씨가 복위하면서 희빈 장씨가 중전에서 희빈으로 강등되고, 희빈 장씨와 관련된 남인 세력이 실각하는 갑술환국이 일어났다.

9. 조선시대 노비 제도 및 노비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선시대 노비의 자식들은 대대로 노비 신분이 세습되었으나, 일정 기간 국역(國役)에 종사하면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② 조선시대 사노비는 주인이 마음대로 매매·양도·상속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주인이 사노비를 함부로 죽이거나 사형(私刑)을 가하는 게 법으로 허용되었다.

③ 사노비는 주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솔거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거주하는 외거노비가 있었는데, 그 수는 솔거노비가 절대 다수였다.

④ 외거하는 사노비는 주인으로부터 사경지(私耕地)를 받아 그 수확을 자신이 차지하여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였다.

9. 정답 : ④

④ 조선 시대 노비 보유자는 외거 노비에게 작개지와 사경지를 짝지어 나누어 주고, 노비는 이것을 가족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 노비 보유자는 작개지 수확물의 반이 넘는 양에서 전량까지를 임의적으로 수취하고 노비들은 사경지의 수확물을 차지하여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① 조선 시대 노비는 신분적으로 사회의 가장 최하층에 위치하였고, 신분 세습법에 의하여 그 신분이 엄격히 세습되어 대대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물론 노비 중의 일부는 국가에 공을 세워 합법적으로 종량되어 노비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노비가 모반사건에 공을 세우거나 흉년에 국가에 많은 곡식을 바치고 면천된 사례도 있었고, 열녀 효자로서 면천된 사례도 있었으나, 이러한 일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여서 노비가 합법적으로 양인이 되는 길은 거의 막혀 있었다. ② 노비는 상속·매매·증여의 대상이지만 주인이 함부로 죽이거나 사사로인 형벌을 가할 수 있는 형살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③ 사노비는 사역 형태에 따라 주인과 함께 사는 솔거노비와 독자적으로 생활하는 외거

노비로 나뉘어졌는데, 술거노비보다 외거노비의 수가 더욱 많았다.

10. <보기>는 해방 후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가) 미 군정의 지원과 대중적 지지 속에 결성된 좌·우합작 위원회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나) 서울의 혜화동에서 여운형이 암살되었다.

(다) 이승만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연설했다.

(라) 미 군정은 좌·우 합작 위원회와 한민당을 주축으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구성했다.

(마)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되었다.

① (가)-(나)-(다)-(라)-(마)

② (가)-(라)-(마)-(나)-(다)

③ (다)-(가)-(라)-(마)-(나)

④ (마)-(가)-(다)-(나)-(라)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정답 : ③

(다) 1946년 6월 이승만은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가)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항하여 중도파인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946년 10월에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라) 좌우 합작 7원칙에 따라 1946년 12월 김규식을 의장으로 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 구성되었다. (마)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1947년 5월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나) 여운형은 1947년 7월 19일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한지근을 비롯한 극우파 청년 다섯 명의 저격을 받고 암살되었다.

11. <보기>의 밑줄 친 ㉠과 같은 신분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대사의 범호는 무염으로 달마대사의 10대 범손이 된다. (……) 고조부와 증조부는 모두 조정에서는 재상, 나가시는 정수를 지내 집집에 널리 알려졌다. 아버지는 범칭으로 ㉠득난(得難)이 되었다.

① 갈문왕이라고 불리는 귀족이 있었다.

② 대귀족으로 진씨, 해씨 등 8개 성씨가 있었다.

③ 귀족들이 정사암에 모여 회의를 열고 수상을 선출했다.

④ 최고 귀족인 왕족과 왕비족은 고추가로 불렸다.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 ‘득난(得難)’은 신라 6부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라에 대한 내용을 고르는 문제이다.

① 갈문왕(葛文王)은 신라에서 대개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왕과 왕비의 아버지가 추봉된 것으로서 고구려의 고추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종 무열왕(김춘추)은 이러한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던 갈문왕제도를 폐지하고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②, ③ 백제에서는 왕족인 부여씨와 8개의 귀족 가문이 중심이 되어 정치를 주도하였다. 초기에는 왕족인 부여씨와 왕비족인 진씨, 해씨가 정치를 주도하였으나, 후기에는 사씨, 연씨 등의 세력이 커져서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귀족 중심의 정치를 하였다. 이들은 정사암에 모여서 재상을 선출하였는데, 이는 귀족 회의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④ 고구려의 고추가(古鄒加)는 왕실인 계루부의 대가(大加), 전왕실인 소노부와 왕비족인 절노부의 적통대인(適統大人)이 칭할 수 있는 관등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고구려의 발전과정에서 왕실의 분화와 교체, 그리고 왕비족의 등장과 같이 모체사회 자체의 분화로 인해 파생한 귀족세력이었다.

12. <보기>에 제시된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하였다.	
ㄴ.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7년으로 하였다.	
ㄷ.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ㄹ.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였다.	

- ① ㄱ-ㄴ-ㄷ-ㄹ ② ㄴ-ㄷ-ㄷ-ㄱ
 ③ ㄷ-ㄷ-ㄴ-ㄱ ④ ㄷ-ㄷ-ㄴ-ㄱ

정답 : ③

ㄷ. 이승만 정권 때 발췌 개헌(1952. 7. 4)에 대한 내용이다.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다고 하여 발췌개헌이라 이름 붙였다. ㄹ. 1972년 개정된 유신헌법에 대한 내용이다.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폐지하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였으며, 임기는 6년으로 하였다. ㄴ. 1980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전두환은 비상 조치권과 국회 해산권 등 유신 헌법의 독소 조항을 그대로 둔 새로운 헌법을 국민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새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ㄱ.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 실시, 헌법 재판소 설치를 골자로 하는 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13. <보기>의 대외관계에 관한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강감찬이 거란군을 맞아 귀주에서 크게 승리했다.
- ㄴ.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 9성을 개척했다.
- ㄷ. 서희가 소손녕과 담판하여 강동 6주를 영토로 편입시켰다.
- ㄹ.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 ① ㄱ-ㄴ-ㄷ-ㄹ
- ② ㄴ-ㄷ-ㄹ-ㄱ
- ③ ㄷ-ㄱ-ㄴ-ㄹ
- ④ ㄹ-ㄴ-ㄷ-ㄱ

정답 : ③

ㄷ. 고려 성종 대인 994년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는 거란의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ㄱ. 거란의 3차 침입 당시 강감찬은 귀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거란군을 격파하였다(1019). ㄴ. 고려 예종 대인 1107년 윤관은 부원수 오연충과 함께 17만의 대군을 이끌고 함흥평야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아 군사를 주둔시켜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ㄹ. 고려가 몽골과 강화를 체결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것은 1270년의 사실이다.

14. <보기>의 (가), (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가)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 種太郎), 스티븐스(Stevens)
- (나) 경인철도, 경부철도, 경의철도

- ① (가)는 대한제국 정부에 고용된 관료였으나, 일본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
- ② (나)의 3개의 철도 모두 최종적으로 일본이 건설했다.
- ③ (가)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 각각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를 감독했다.
- ④ (나)의 철도 건설에 토지·노동력을 강제 징발당한 한국인의 분노와 저항이 일어났다.

정답 : ③

제시된 자료 (가)는 제1차 한·일협약(1904. 8)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으로 파견된 인물들이며, (나)의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은 모두 일본이 부설한 철도노선이다.

③ 일제는 한국의 재정 및 외교 정책 쇄신을 위한 외국 고문의 초빙에 대한 협정 체결을 한국 정부에 강요하여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서)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 나네타로[目賀田種太郎], 외교 고문으로 친일 미국인 언론가 스티븐스가 초빙되었다(일본의 외교권·재정권 장악).

① 제1차 한·일협약에 규정된 재정 및 외교고문의 용병계약에 의하여 한국의 주권은 한일의 정서의 조인에 의한 것보다 가중한 제약을 받게 된 것으로, 한국은 이미 온전한 독립국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두 고문의 강제 용병을 전후하여 조약에 하등의 조건도 없이 자진 초청한다는 형식을 빌려 각 부에도 모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문을 차례로 두게 하

여 이른바 ‘고분정치체제’를 확립시켜 나갔던 것이다. ② 일본은 1897년 미국으로부터 경인선 부설권을 양수받아 1899년 완공하였고, 1898년 경부선 부설권을 획득하여 1904년 완공하였고, 1903년 대한제국으로부터 경의선 부설권을 양수받아 1906년 완공하였다.

15. <보기>의 시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귀신같은 전술은 천문을 꿰뚫었고 묘한 전략은 지리를 통달했구나.
전쟁에서 이겨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함이 어떠하겠는가.

- ① 동천왕 때 일어난 전쟁이다.
- ② 살수에서 고구려군이 크게 승리하였다.
- ③ 당 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감행하였다.
- ④ 왜군 3만 명이 원군으로 참전하였으나 백강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수나라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을지문덕이 도덕경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신이 직접 쓴 시를 보내 수나라 장수 우중문을 조롱하는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이다.

② 612년에 수 양제는 직접 113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요동성을 포위, 공격하는 데 실패하고 바다를 건너 평양성 부근까지 침략한 수군 또한 침패하자, 초조해진 수 양제는 30만 명의 별동대를 투입하여 평양성을 치게 하였다. 우중문 등이 거느린 별동대는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의 유도 작전에 말려들어 평양성 부근까지 진군하였다가 크게 지치고 굶주려 결국 후퇴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이 틈을 타서, 적군이 살수를 건널 때 그 주력 부대를 공격하여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별동대 30만 명 중에서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겨우 2700명 정도였다고 한다. 이 싸움이 유명한 살수 대첩이다(612).

① 살수대첩은 고구려 영양왕 때 일어난 전쟁이다. ③ 645년 안시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다. 수의 뒤를 이은 당나라도 고구려를 침략할 기회를 엿보았고 당 태종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고구려는 국경의 여러 성이 함락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안시성을 중심으로 민·군이 협력하여 마침내 당군을 물리쳤다(645). ④ 백제 부흥 운동과 관련된 백강 전투에 대한 내용이다.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 입구에 진입하였으나, 백강 입구 전투에서 패배하였다(663).

16. 발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해는 고구려계 유민과 말갈계 유민이 세운 다민족 국가였다.
- ② 제2대 무왕은 산둥지방의 등주(登州)에 수군을 보내 당을 공격하였다.
- ③ 제3대 문왕은 확대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수도를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그리고 ‘동경용원부’로 옮겼다.
- ④ 제5대 성왕 때에는 국력이 더욱 강대해져서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정답 : ④

④ 발해는 9세기 전반의 제10대 선왕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도를 차지하였고, 지방 제도도 정비하였다.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인들은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① 7세기 말에 이르러 당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들은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만주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길림성의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웠다(698). ② 발해 무왕 대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부 말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해는 먼저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 ③ 발해 문왕 대인 756년경에 수도를 중경 현덕부(길림성 화룡현 서고성)에서 북쪽의 상경 용천부(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로 옮겼다. 그 후 785년경에는 다시 동경 용원부(길림성 훈춘시 팔련성)로 수도를 옮겼다. 이것은 발해의 국력이 점차 동쪽으로 신장되었음을 보여 준다.

17. <보기>의 밑줄 친 ‘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적이 개경 근처에 이르자 왕이 난을 피해 개경을 떠났다. 왕이 북주에 이르러 정세운을 총병관으로 삼아 홍건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 ① 자제위를 설치하였다.
- ②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③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 ④ 박위를 보내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를 공격하였다.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홍건적의 침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밑줄 친 ‘왕’은 공민왕이다.

④ 고려 말 왜구의 창궐이 극심하여 박위를 통해 대마도를 정벌한 것은 창왕 때의 일이다(1389).

① 공민왕 대 국왕의 신변을 호위하고 동시에 고려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공신 및 고위 관직자의 자제를 선발하여 공민왕을 시중들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빈과 자제위 사이에 풍기 문란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민왕은 자제위 소속의 최만생(崔萬生)과 홍륜(洪倫)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공민왕 23, 1374). ② 공민왕 때 국가 재정 확보와 민생 안정,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킬 목적에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섭정대사로 신돈을 등용하여, 불법적으로 겸병한 권문세족의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풀어주도록 하였다. ③ 공민왕은 원의 내정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친원 세력의 연락 기구였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18. <보기>의 인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명나라 사신 왕경민이 “항상 기자가 동쪽으로 온 사적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 조선에 기록된 것이 있으면 보고 싶다.”라고 하니, (㉠)이(가) 전에 본인이 저술한 『기자실기』를 주었다.

- ①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도록 하였다.
- ②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집필하였다.
- ③ 유성룡, 김성일, 장현광 등 주로 영남학자들에게 그의 학설이 계승되었다.
- ④ 일평생 처사로 지내며 독창적인 유기철학을 수립하였다.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은 『기자실기』를 저술한 ‘율곡 이이’이다.

② 이이는 『성학집요』를 지어 올려, 현명한 신하가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군주 개조론을 주장하였고, 성리학 초심자를 가르치기 위해 『격몽요결』을 저술하였다.

① 국왕에게 주청하여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을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게 한 인물은 이황이다. ③ 유성룡, 정구, 김성일, 장현광은 퇴계 이황의 학통을 계승한 학자들이다. 율곡 이이를 종장으로 한 기호학파의 인물은 성혼, 송익필, 김장생 등이 있다. ④ 서경덕에 대한 내용이다. 서경덕은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처사로 지내면서 개성 화담에 은거하여 독서와 사색으로 일생을 보냈으며, 조선 전기 성리학에서 주로 불교비판을 위해 연구되었던 기론을 정리하여 성리학적 우주론의 체계를 일단락 지은 성리학의 선구자이다. 그에 따르면, 우주 자연은 미세한 입자인 ‘기(氣)’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는 영원불멸하면서 사물 현상을 낳는다고 보았다.

19.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조선후기에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많은 저술 활동이 이루어졌다. (㉠)은(는) 『과농소초』를 집필하여 농업 기술 발달에 기여하였고, (㉡)은(는) 『마과회통』을 저술하여 의학 분야 발달에 기여하였다.

- ① ㉠은(는) 천주교도를 탄압한 신유사옥 때 유배형에 처해졌다.
- ② ㉡은(는) 여선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 ③ ㉠은(는) 서얼 출신으로 상공업 육성과 청과의 통상 무역 등을 주장하였다.
- ④ ㉡은(는) 『반계수록』을 집필해 토지재분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에서 ㉠은 『과농소초』를 집필한 박지원, ㉡은 『마과회통』을 저술한 정약용

이다.

② 정약용은 토지의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30가구를 마을 단위의 공동 농장 제도인 1여(閭)로 하여 노동량에 따라 수확량을 분배하고자 하는 여전제를 주장하였다.

① 1801년(순조 1년) 발생한 신유박해 당시 정약용의 형인 정약종을 비롯하여 주변 인물들의 목숨을 앓아갔다. 이 박해 당시 정약용은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어 19일만에 풀려났다가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11월에 다시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③ 『북학의』를 저술한 박제가에 대한 내용이다. 승지 박평의 서자로 태어난 박제는 청에 다녀온 후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또한 상공업의 발달,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다. ④ 『반계수록』을 집필한 인물은 유형원이다.

20. <보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역사학자
- 태백광노(太白狂奴) 또는 무치생(無恥生)이라는 별호를 쓰기도 함
- 상해에서 『안중근전』을 저술함

① ‘혼’과 ‘백’ 중 ‘혼’을 잃지 않으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윤세복이 만주에 세운 동창학교에 참여하였다.

③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④ 한민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은 한말의 대표적인 언론인이자 애국계몽 운동가, 일제 치하 민족해방을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한 박은식이다. 박은식의 호는 겸곡(謙谷), 백암(白岩·白巖·白菴), 태백광노(太白狂奴), 무치생(無恥生)이며 일제의 국권 침탈 이후에는 대종교에 입교하여 『동명성왕실기』, 『발해태조건국지』, 『몽배금태조』, 『명림답부전』, 『연개소문전』, 『대동고대사론』 등 일련의 역사서를 집필하였다. 그리고 북경, 상해 등을 오가며 교민단체인 동계사를 결성하고 이들의 교육을 위한 박달학원을 설립하기도 하고, 언론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으며, 『안중근전』을 집필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④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령 김구는 소수의 인원으로 일본에 최대한 타격을 주는 한편, 임시 정부의 활동 공간이던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1931년 10월 일본 정부 및 군부 수뇌들을 암살할 목적으로 한민애국단을 조직하였다.

① 박은식은 전통적인 혼백론(魂魄論)을 원용하여 국혼론(國魂論)을 전개하였는데, 국가 구성 요소를 정신적인 국혼(國魂)과 물질적인 국백(國魄)으로 구분하고, 국혼을 국백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로 간주하였으며, 종교, 언어, 문학, 역사, 풍속 등을 포함하는 민족 문화 및 민족정신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국혼의 여러 요소 중에서 역사를 국혼의 소재처로 가장 중시하였으며, 역사를 국혼의 전개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② 윤세복은 대종교에서 활동한 대표적 인물로 1911년 봉천성 환인현으로 이주하여 동창학교를 설립하였고, 박은식은 동창학교의 교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활동한 박은식

은 임시 정부 국무총리 겸 대통령 대리로 추대되었고, 1925년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제2
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독립운동의 일선에서 활약하였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